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최수철



선거가 끝났다. 선거철이 되면 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근래 들어 새로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평판을 얻어 잠자 다른 곳에서 부수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자신의 유전자 계속 복제되게 하려는 바람의 결과라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에게 비합리적 이타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다시피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공언한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투표할 하는 것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흡사한 점이 있다.

진화심리학은 충실한 남편과 비열한 남자를 분명히 나눠놓고 있다. 여자들은 장

기적 짝짓기 전략을 추구하는 남자와 단기적 짝짓기 전략을 추구하는 남자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여자는 미혼모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럴 경우 그녀와 자식들의 생존확률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남자들은 정조를 지키는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구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배우기처럼 자기 등지 속에 다른 사람의 씨가 들어앉아 있는 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장기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충실한 남편과 절개를 믿을 수 있는 아내를 선택해야만 이용당하거나 기만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기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마당에 이는 실로 어려운 일이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이기적 본성을 경계하고 넘어사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서 묵묵히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최우선의 목표로 생각하는 파충류 뇌라는 게 있는데, 부처의 가르침은 사실 그 파충류 뇌의 존동을 제어하려는 노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불가에는 소승과 대승이라는 개념이 있다. 말 그대로 '작은 수레'라는 뜻의 소승

작은 수레와 큰 수레

은 자기 한 개인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고, '큰 수레'라는 뜻의 대승은 자아가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작은 수레에서 시작하여 큰 수레가 되는 것인데, 내한 몸 기꺼이 버려졌다고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가들 중에 그렇듯 각고의 수행을 거쳐 이상적인 수레에 이르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또 불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염소 수레, 사슴 수레와 구별하여 하얀 황소 수레가 곧 중생을 피안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

이라고 하는데, 염소 수레, 사슴 수레가 하얀 황소 수레인 양 가장하고 나서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지금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언젠가 어느 솔직한 후보자가 나서서 이런 연설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주저 없이 그에게 한 표를 던질 것이다. "저는 제가 누구보다 이기적인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자 애쓰지만 너무도 어렵습니다. 사실 제 지나온 삶도 간신히 구색을 갖추었을 뿐,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사실 남들 앞에 나서서 위세를 부리고 싶은 게 제 성향이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염소 수레나 사슴 수레가 어울릴 뿐, 감히 하얀 황소의 수레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자 저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선하면 결과에 승복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분노와 적개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저라는 한 인물 살려주시는 셈치고 저를 뽑아주십시오. 어차피 누가 되든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야, 총선 민심 받들어서 새 정치 보여줘야

19대 총선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포함, 150석 안팎의 원내 제1당을 안겨준 것이다.

당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호남·제주 등지에서 싸움이, 충청권·강원도에서 선전을, 부산과 경남에서 4~5석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제1당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130석 정도에 그쳐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민주당의 제1당 진입 실패는 선거 막바지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정 등 악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현 정권의 실정(失政)에 따른 우세가 잠깐이던 당 지도부가 자만해집대다 공천 잡음과 모바일 경선 논란 등이 잇따라 패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역시 승리를 거뒀다고 하나 오히려 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

일 뿐이라는 민심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 민간인 사찰 파문 등 정부·여당의 심판론은 지금도 유효하다.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 구도의 고착화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광주 서클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대구 수성구에서 벽을 넘지 못해 지역주의의 그림자가 더 짙어진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으로는 광주 동구를 제외한 무소속이 전멸하고, 통합진보당 후보가 2석을 차지해 민심이 민주당 결집을 통한 이명박 정권 심판과 변화의 바람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역경제, 시민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는 민의를 존중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이 납득하는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인터넷 장터 '떡튀' 두고만 볼 건가

경제난을 틈타 저가 판매를 가장한 인터넷 물품판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행위는 전체 인터넷 미디어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는 지난 2008년 2만9290건, 2009년 3만1814건, 2010년 3만510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인터넷 사이트 '더치트'(www.thecheat.co.kr)에만 매일 5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여수경찰은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만들어 상품권과 휴대폰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28명으로부터 36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자를 구속했다. 그는 대포통장과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을 써왔다.

인터넷 물품 거래는 이미 새로운 유통채널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해 누구든 물건을 싸고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비자 보호의 시각적대로 남아있어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속칭 '떡튀'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비롯, 반쯤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기만은 말할 것도 없이 생산·유통·소비자 간의 신뢰다. 사기행각을 도덕적 차원을 넘어 경제질서를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로 봐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 책임 강화는 물론 판매자 정보 제공 등 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 사기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개인 인터넷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스스로 판매자의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사기 피해에 주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 칼럼



이경주

65세 김성철(가명)씨는 최근 복부 팽만감 이외에는 특이한 소견은 없는 상태에서 주위의 권유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했다. 그런데 결정에서부터 직장까지 총 12개의 다양한 크기의 용종이 발견됐다. 크기는 3mm~20mm까지 다양했고, 조직검사 결과 선종으로 대장암 진단에 해당하는 대장내시경을 통한 절제술 후 완치됐다.

대장암은 아주 흔한 암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소화기 암중에서는 위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 식생

정기검진이 최선

활 등의 환경요인이 서구화되어 감에 따라 그 발생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음식 요인으로는 붉은 고기, 고지방 음식, 고 탄수화물 음식의 섭취 등이 문제가 되며 생활 습관으로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흡연·비만 등이 그 요인이 되고 있다.

대장암의 증상으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 대변의 질 변화, 복부팽만감 혹은 복통, 혈변, 몸무게 감소 등이 있으나 대장암 초기에는 무증상이 많으므로 진단시 이미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장암의 조기검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장암은 90% 이상이 용종에서 발생됨에 따라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의 조기 발견 및 제거가 중요하다.

대장 용종이란 장 점막의 일부가 주위 점막 표면보다 돌출하여 마치 혹처럼 형성된 것을 말하고 그 중에서 선종성 용종은 전암

성 병변에 해당한다.

용종의 유병율은 20~40% 정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용종의 유병률 또한 증가한다. 그러나 대장 용종을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5% 이하에서만 대변 잠혈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종양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 발견시에는 용종은 모든 경우에서 제거해야 하며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과 양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용종이 있는 환자는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고 용종을 제거한 후에는 약 30~50%의 환자에서 새로운 용종이 다시 생기므로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용종이 3개 이상 발견되고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2~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기고



조영조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계절이 왔다. 푸른 생명이 움트는 희망찬 계절은 우리 모두를 들뜨게 한다. '녹색의 땅' 전남에는 많은 축제가 열려 도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완도청산 슬로걷기 축제, 영암 왕인 문화 축제 등 화창한 봄을 맞아 각양각색의 축제가 열린다. 이들 축제는 지역 특유의 문화와 체험행사, 볼거리, 먹을거리, 특산물 판매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축제의 재미는 아무래도 먹는 재미가 아닌가 싶다. 질박하면서도 넉넉한 인심에다 독특한 풍미를 지닌 전라도 음식에 대한 후

지역축제와 로컬푸드 운동

한 평가는 절대 지나치지 않다. 지자체들이 대내외 관광객의 축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도음식을 첫 손가락에 꼽는 것도 그리 하려니와 전국 '맛객'들의 음식 기행에서 전라도가 절대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증거가 된다.

너른 남도풍광에서 나는 곡물과 양념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또 서남해안에서 건져 올린 풍부한 해산물, 야트막하나 숨은 사연 하나씩은 품고 있을 법한 산들에서 채취한 나물은 맛깔스러운 상차림 재료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조선 소 이후 해를 이어온 토박이들의 풍류와 개성 이 한데 버무려져 전라도 음식은 우리나라 '로컬푸드'(Local Food·향토음식)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이처럼 독특한 지역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축제문화와 로컬푸드를 통해 전남농협은 지역에서 나는 음식재료를 소비자에게 '식

(食)사랑 농(農)사랑 운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이 운동은 지역별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지자체와 각급 기관단체 및 요식업소들이 참여해 지난 3월까지 54건의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식'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이 있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얘기다. 즉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낸다는 것이다. '신도불이'가 국민 모두에게 관심을 주었듯이, 향토 음식이야말로 건강을 담보해주는 최상의 약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로컬푸드의 보충·발전은 미래의 지역농업·농촌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장김치를 담그려면 해남 배추에다 신안의 천일염, 고흥 무안의 마늘 양파, 보성 쪽파, 진도의 대파, 영광의 고추 등을 빼놓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뿐만 아

니라 영광의 모시일 송편에 들어가는 쌀과 모시일, 광양의 매실 가공식품, 장흥의 토요 시장 한우, 여수의 돌산강, 곡성의 참게장과 부각, 사평의 기정떡, 영암 토하, 장성 솔잎차, 해남 전통냉장, 무안의 황토고구마 등 지역농산물과 향토 음식이 가져다주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특히 도시민에게는 농촌생활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주고, 농촌에는 개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어메니티'(Amenity·농촌사랑) 상승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전남농협은 '식(食)사랑 농(農)사랑 운동'을 통해 로컬푸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별로 농축산물 특화작목 육성, 유통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과 줄기'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생명 창고지기'를 수행하는 농업·농촌에 온 국민의 따스한 사랑과 관심을 불러 넣어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를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통되어 멋모르고 먹거나 사용했다가 어떤 부작용을 당할지 모른다.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사가지고 온 거러며 한 직원이 관절염, 진통제를 꺼내냈다. 그뿐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제, 각종 다이어트 약, 우황과 사향 같은 것도

적잖다. 그러나 이런 약제에 과연 얼마나 가치가 높은 약효가 들어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치명적인 독소가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다. 앞으로 여행중 이런 약제를 마구 사 들어오는 일은 삼가야겠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해외여행시 효과 미흡했던 의약품 반입 자제해야

요즘은 국민소득이 높아져서인지 해외여행을 많이 나간다. 사상 최대의 비행기 예약 뉴스가 시시때때로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먹고살만 해진 것 같다.

주변 친지들이나 친구들로부터도 해외여행 이야기를 자주 듣고, 회사 직원들로부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여행 후에는 꼭 무슨 약속이나 한듯이 현지 특산품이라는 화장품, 펜 종류, 혹은 술이나 의약품 같은 걸 선물로 사들고 와서 나눠주기도 한다.

해외여행을 기념하고, 또한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준 동료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로 이런 선물을 사들고 오는 거야 우리의 인성상정

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의약품은 좀 신경이 쓰인다. 중국은 물론이고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아주 흔히 다니오는 대표적인 동남아 휴양지이다. 이곳에서는 열대식물에서 추출해 만들었다는 여러 약제, 호랑이 기름, 각종 파스류, 아토피 치료제 등 여행객들은 특효라는 말을 믿고 많이 사 들고와서 나눠주기도 한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사들고 오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은 세관 검사 시 뜻하지 않은 고성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은 그 효과도 미흡적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지난 2008년 2월, 스크린을 달군 영화 '추격자'.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련의 살인 사건에 대한 관심은 피해자나 가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대중과 사회에서 금세 잊혀지는 것이 한국 사회다.

개개인의 물질적 이익만을 중시 여겨며 주변과 사회에 무관심한 극도의 개인주의사회에서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는,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했나?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

영화의 주인공 중호는 씩어빠진 부패 경찰로 바리를 저지르고 사직된 후 출장안마소를 운영한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삼'이라 부를 수 없는 엄중호가 '미진'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과정속에서 '중호'를 통해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무너져 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지난 1월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능력과 잇따른 거짓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 당하고

한 전과(?)를 알려주었다. 자신의 여동생이, 딸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20명의 경찰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표연오 청양이 사의를 표하고 상황실 근무자를 능력이 있는 고참자로 바꾸는 등 사후방문 처방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직과 불성실을 뿌리뽑아 거듭나야 한다. 더불어 극도의 개인주의에서 우리들도 20명의 상황실 경찰들과 같은 방관자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국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